

KIA '원클럽맨' 김선빈 3년 30억 'FA 도장'

“타이거즈 응원소리 계속 들을 수 있어 감사...가을 야구 정상에 서겠다”
‘막강 타선’ 유지 KIA, 내달 1일 호주 스프링캠프 차리고 새 시즌 준비

김선빈이 타이거즈 원클럽맨으로 남는다. KIA 타이거즈가 4일 내야수 김선빈과 계약 기간 3년 총액 30억원(계약금 6억원, 연봉 18억원, 옵션 6억원)에 FA 계약 도장을 찍었다. 지난 2020년 계약 이후 두 번째 FA 계약이다.

2008년 화순고를 졸업하고 고향팀 유니폼을 입은 김선빈은 KBO리그 15시즌 동안 1509경기에 나와 1506안타를 기록하면서 통산 타율 0.303을 기록하고 있다. 김선빈은 15시즌 동안 564타점, 691득점, 149도루도 작성했다.

2017시즌에는 0.370의 타율로 ‘타격왕’에 올랐고, 유격수 부문 골든글러브도 차지했다.

김선빈은 지난 시즌에도 매서운 타격 실력을 보이며서 0.320의 타율과 함께 134안타, 48타점, 41득점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또 김선빈은 지난 2년 팀의 주장을 맡기도 했다.

김선빈은 2019시즌이 끝난 뒤 첫 FA 자격을 행사했고, KIA와 계약 기간 4년 총 40억원(계약금 16억원, 연봉 18억원, 옵션 6억원)에 계약 도장을 찍었다.

2023시즌 종료와 함께 두 번째 FA 자격을 얻은 김선빈은 KIA와 계약을 마무리하면서 고향팀의 원클럽맨으로 남게 됐다.

김선빈은 “KIA에 남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다. 좋은 조건을 제시해 준 구단에 감사하다. 계속해서 타이거즈 팬들의 응원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돼 기쁘

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시즌 전까지 운동에 전념하며 팀이 꾸준한 강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주장직은 내려놓았지만 고참선수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팀이 가을야구 정상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선빈에 이어 올 시즌에는 나성범이 주장으로 선수단 전면에 선다.

FA 계약을 마무리한 KIA 심재학 단장은 “김선빈은 팀에 꼭 필요한 선수이다. 원클럽맨으로 타이거즈에서 꾸준히 활약한 프랜차이즈 선수인 만큼 무조건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했다. 실력은 검증된 선수다. 지금처럼 해준다면 팀 전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태군과의 다년 계약으로 안방을 다진 KIA는 ‘타격 천재’ 김선빈도 잔류시키면서 막강 타선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베테랑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4시즌 ‘가을 잔치’를 노리는 KIA는 2월 1일 호주 캔버라에 스프링캠프를 차리고 새 시즌을 위한 담금질에 나서게 된다.

이어 일본 오키나와에서 실전 체제로 전환, 3월 2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키움 히어로즈와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막이 오르는 2024시즌을 준비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선빈(오른쪽)이 4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FA 계약을 체결한 뒤 KIA 타이거즈 심재학 단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mall>(KIA 타이거즈 제공)</small>

고우석, 김하성과 한솔밤
SD 2+1년 최대 940만달러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구단이 고우석(25)을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른손 볼펜 투수 고우석과 상호 옵션이 포함된 2년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미국 현지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샌디에이고가 고우석과 계약기간 2년, 총액 450만달러(약 59억원)에 계약했다고 보도했다.

성적에 따른 옵션을 모두 채우면 고우석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늘어나고, 총보수는 940만달러(123억원)도 배 이상 상승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고우석은 2024년 연봉 175만달러(23억원), 2025년 225만달러(29억원)를 받는다. 옵션이 발동돼 계약이 연장되면, 고우석은 2026시즌 300만달러(39억원)를 수령한다.

옵션이 실행되지 않으면 전액금 성격의 바이아웃 50만달러(6억5000만원)가 주어진다.

고우석은 또한 2025시즌 자신의 동의 없이 마이네리트로 떨어지지 않는 ‘거부권’을 계약 내용에 포함했다. 아울러 매년 한국에 오가는 왕복 항공권 2장씩도 받는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고우석과 계약 소식을 널리 알렸다.

/연합뉴스

광주FC, 성적은 3위 연봉은 12위

K리그 구단·선수 연봉 지출 현황
59억5067만6000원 그쳐
전북 198억 767만원 ‘1위’
‘선수 1위’ 울산 김영권 15억

2023시즌 MVP 김영권(울산)이 연봉에서도 ‘MVP’였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4일 2023시즌 K리그1 12개 구단과 군민팀 김천상무를 제외한 K리그2 12개 구단의 선수 연봉 지출 현황을 발표했다.

연봉은 기본급과 출전수당, 승리수당, 공격포인트 수당 및 기타 옵션 등 각종 수당을 더한 실질급액을 기준으로 했다. 수당에는 2023시즌 K리그와 FA컵, AFC 챔피언스리그 경기 수당도 포함됐다.

2023시즌 각 구단에 한 번이라도 등록된 적 있는 모든 선수가 산출대상이었으며, 시즌 중도에 입단하거나 퇴단한 경우 팀에 실제 소속된 기간에 비례한 숫자로 포함됐다.

국내 선수 중 최고 연봉 1위는 15억 3000만원을 받은 울산 김영권이었다. 이어 전북 김진수(14억 2000만원), 울산 조현우(13억), 전북 홍정호(11억 7000만원), 수원FC 이승우(11억 1000만원)가 연봉TOP5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시즌에는 김진수가 14억7000만원으로 1위, 김영권이 13억9000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었다.

외국인선수에서는 대구 세정야가 15억 5000만원으로 ‘연봉왕’에 올랐고 울산 바코(15억 2000만원), 전북 구스타보(14억 6000만원), 인천 제르소(14억 1000만원), 인천 음포쿠(13억 2000만원) 순이었다.

2023시즌 K리그1의 12개 구단이 지출한 연봉 총액은 1385억 6712만 3000원에 달했다.

구단별로는 전북이 가장 많은 198억 767만 7000원을 연봉으로 지출했고, 울산 183억 4073만 1000원, 서울 132억 3965만 5000원, 제주 119억 216만 6000원 순이었다.

2023시즌 3위인 광주는 59억5067만6000원으로 연봉 총액 ‘12위’였다. ‘연봉 1위’ 전북의 30% 수

준에 불과했고, 연봉 총액 11위인 대구(84억494만 5000원)와 비교해도 24억5426만9000원이 적다.

K리그1의 선수 1인당 평균 연봉은 2억 9545만 2000원으로 국내 선수는 2억 3158만 8000원, 외국인 선수는 7억 7535만 1000원이었다.

구단별로 1인당 평균 연봉은 울산이 5억 7766만 1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북이 4억 840만 6000원, 제주가 3억 8497만 6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광주는 평균연봉에서도 1억 8644만 4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K리그2 12개 구단의 연봉 총액은 468억 5580만 8000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 854만 6000원으로 확인됐다.

부산이 가장 많은 59억 1467만 3000원의 연봉을 지출했고, 서울이랜드 54억 8393만 2000원, 안양 52억 4529만 원 순이었다. 1인당 평균 연봉은 서울이랜드가 1억661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남은 연봉으로 K리그2에서 4번째로 많은 50억2891만6000원을 지출했고,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3684만1000원이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미드필더 박태준 영입

광주FC가 ‘테크니션’ 미드필더 박태준(24-사진)을 영입해 허리를 강화했다.

프로 7년 차 박태준은 성남FC와 FC안양 등에서 활약했다. 175cm·74kg의 날렵한 체격의 박태준은 패스능력과 볼 소유 능력이 좋은 중앙 미드필더다. 왕성한 활동량이 돋보이는 그는 사이드 플레이까지 가능하다.

성남 U-18 포승고 출신인 그는 2018년 신인 선수 선발을 통해 성남FC로 풀입 됐으며, 프로 첫 해 22경기에 출전해 1골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같은 해 U-20 대표팀에도 처음 소집됐으며, 2019 FIFA U-20 월드컵 3경기에도 출전했다.

2021시즌 하반기 FC안양으로 임대된 박태준은 20경기 6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승격플레이오프 진출에 일조했다.



같이 뛰는 한

2022년에는 서울 이랜드로 임대, 12경기에서 1도움을 기록했다. 2023년 성남으로 복귀한 뒤 20경기에 나와 1골 2도움을 기록했다.

박태준은 “성남 시절 많은 지도를 해주신 이 정호 감독님을 지난 시즌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준 광주에서 재회하게 돼 기쁘다. 광주에서의 생활이 많은 기대가 된다”며 “그동안 팬 분들이 어린 유망주로 많이 바라보셨는데 광주에서 새로 시작하는 만큼 그 시선을 바꿀 수 있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리그 ‘2023 시즌만 같아라’

관중 300만 돌파 ‘역대 최고’
입장 수입 344억2068만원
2022 시즌보다 115% 증가
광주FC 9억8189만원 수입

2023 K리그가 흥행 바람을 타고 최다 입장수입 기록을 달성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4일 2023시즌 K리그1-2 입장수입과 평균 객단가를 발표했다.

2023시즌 K리그1-2 합계 300만 관중을 돌파하는 등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면서, 총 입장수입도 공식 집계를 시작했던 2013년 이후 최다인 344억 2068만 9010원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최다 입장수입 기록인 2019시즌 197억 원보다 약 74.72% 증가한 수치다. 직전 시즌인 2022시즌(160억)과 비교하면 115.12%나 증가했다.

2023시즌 K리그1의 입장수입은 307억 6964만 710원으로 집계됐다.

FC서울이 가장 많은 63억 1094만 6400원을 기록했고, 울산HD 42억 4768만 1001원, 수원삼성 35억 5600만 4100원, 전북현대 33억 4975만 8120원 순이었다. 광주FC(사진)는 19경기에 8



만6090명이 입장하면서 9억8189만1300원의 입장수입을 냈다.

K리그2 총 입장수입은 36억 5104만 8300원이었다.

FC안양이 7억 210만 3200원으로 가장 많은 입장수입을 냈고, 전남드래곤즈가 4억 4138만 5280원, 부산아이파크가 3억 8591만 3500원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K리그1 12개 구단 평균객단가는 1만1980원였다. 객단가 역시 2013년 이래 최대로 수원이 1만 5418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이 1만4676원, 대구가 1만2995원으로 뒤를 이었고, 광주는 1만 1269원을 기록했다.

K리그2의 평균 객단가는 4972원으로 가장 높

은 객단가를 기록한 팀은 안양으로 8090원이었다. 전남 객단가는 5153원이었다.

관객 1인당 입장수입을 뜻하는 객단가는 시즌 전체 입장수입에서 실제로 경기를 관람하지 않은 시즌권 소지자의 티켓 구매금액을 차감한 뒤 이를 시즌 전체 유료관중 수로 나눠서 산출한다.

연맹은 입장수의 증가에 대해 “300만 관중을 돌파한 역대급 흥행과 객단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무료 입장권과 할인 입장권을 지양하는 등 유료관중을 늘리려는 구단들의 노력으로 객단가가 상승했다”며 “또 K리그의 높은 인기로 금액대별 다양한 특성과 좌석을 판매한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굿즈 만나세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마스코트인 뭉초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굿즈 온라인 스토어 오픈’ 행사 시작 전 굿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small>/연합뉴스</small>